

마이바흐 첫 순수 전기차 'EQS SUV' 나왔다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680 SUV’ 고급 외관·안락한 실내
1회 충전 600km 주행... 퍼스트클래스급 뒷좌석 편의사양 눈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7일 오후 2시(현지시간) 상하이 모터쇼(Auto Shanghai)와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SU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마이바흐 EQS SUV는 마이바흐의 독보적인 고급스러움과 EQS SUV의 기술력이 결합된 모델이다.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680 SUV’는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과 섬세한 장인정신으로 완성한 안락한 실내 공간에 최대 출력 484kW, 최대 토크 950Nm의 성능을 갖춘 전기 SUV다. 길이 5125mm, 너비 2034mm, 높이 1721mm로, 휠베이스 거리는 3210mm다. 1회 충전 예상 주행거리는 최대 600km다. 우선 마이바흐 EQS SUV는 ‘좋은 것은 또한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마이바흐의 신조 아래 마이바흐와 메르세데스-EQ 특유의 디자인이 조화를 이뤘다. 전면부는 메르세데스-EQ의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 처리된 트림 스트립이 수직으로 배열돼 입체적인 깊이감을 강조하면서 마이바흐와 EQ의 디자인을 조화롭게 융합했다. 후드 중앙의 삼각별은 마이바흐 모델이 보여주는 고급스러움을 상징하고, 선택사양으로 제공되는 두 가지 색상의 마감으로 외관을 돋보이게 했다.

특히 퍼스트 클래스에 버금가는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뒷좌석 편의사양도 돋보인다. 마이바흐 EQS SUV의 뒷좌석은 정교한 소재와 고품격 편의사양이 어우러져 최고급 라운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앞좌석과 동일하게 통풍, 마사지, 및 목과 어깨 온열 기능이 포함된 이그제큐티브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됐으며, 소파 패키지는 종이리 마사지 기능이 포함돼 주행 중에도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뒷좌석 승객이 리클라이닝 기능을 선택하면 앞좌석 동반석 시트가 자동으로 앞으로 움직여 뒷좌석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11.6인치 풀 HD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된 MBUX 하이엔드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7인치의 MBUX 뒷좌석 태블릿이 기본으로 적용돼 뒷좌석 승객들도 차량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직접 조작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또는 HDMI를 통해 휴대폰, 노트북 등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 여기에 메르세데스-벤츠 모델 최초로 시트 커버 등 실내 마감 소재로 베지터블 탠 가죽을 사용했다. 가죽 태닝 원료로 커피 원두 껍질을 사용했으며, 유화까지 공정 원료도 모두 식물성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 등 지속가능성 요소를 접목했다. 벤츠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죽을 공정하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SUV’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이바흐의 독보적인 고급스러움과 EQS SUV의 기술력이 결합된 모델로,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뒷좌석 편의사양과 전용 주행 모드 등이 특징이다.

기준을 정립하고, 사육장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전체 가죽 공급 과정을 검토한다. 가죽 공급업체들은 불발 삼림 벌채나 자연림 손실없이 방목장을 운영해야 하며, 각 종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사육되는 동물에게서만 가죽을 채취할 수 있다. 여기에 가죽 태닝 시 크롬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물성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태닝 원료로만 가죽을 태닝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이밖에 EQS SUV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과 소재들은 재활용 알루미늄 등 자원을 절약하는 원료로 제작됐으며, 탑재된 배터리도 탄소 중립적으로 생산됐다. 최상의 안락함을 자랑하는 마이바흐 전용 주행 모드와 럭셔리한 편의사양도 특징이다. 에어매트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돼 정교하게 반응하는 에어티브리 탭핑 시스템을 통해 드라이빙 모드,

속도 및 하중에 따라 각 휠을 개별적으로 제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과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한다. 주행 속도에 따라 전고가 최대 3mm까지 높아지며, 조향각이 최대 4.5도에 이르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기본 탑재됐다. 마이바흐 주행 프로그램도 기본 탑재돼 기존 컴포트 주행 모드를 대체, 뒷좌석 승객의 편안함을 극대화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3천만원대 전기 SUV...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출시

1회 충전 417km 주행 ‘동급 최고’
실용성 두루 갖춘 다재다능 SUV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다재다능한 SUV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나 일렉트릭은 64.8kWh 배터리를 장착해 국내 산업부 인증 기준으로 417km에 달하는 동급 최고 수준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갖췄다. 또 코나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으로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범퍼부터 후드까지 매끈하게 다듬어진 우아한 형상은 코나 일렉트릭의 순수한 볼륨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동급 SUV 대비 우수한 0.27의 공력계수(Cd)와 동급 최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달성을 가능하게 했다. 코나 일렉트릭은 SDV(Software-Defined Vehicle) 기반의 편의 사양과 첨단 안전 사양을 대거 탑재해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자랑한다. 현대차는 ▲차량을 항상 최신 사양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OTA, 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 ▲카페인과 연동해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e-hipass(e 하이패스) 기능 등을 기본으로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차로 유지 보조(LF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안전구간·곡선로) ▲지능형 속도제한 보조(ISLA) ▲안전 하차 경고

(SEW)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 핵심 안전 사양을 전 모델에 기본화 했다. 코나 일렉트릭의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모델 프리미엄 4654만원, 롱레인지 모델 프리미엄 4968만원, 인스퍼레이션 5323만원이다.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혜택과 구매 보조금이 반영될 경우 스탠다드 모델 프리미엄은 3000만원대 초중반, 롱레인지 모델 프리미엄은 3000만원대 중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그룹 전기차 글로벌 ‘질주’

1분기 해외판매 10만대 돌파...전년비 49.7% 늘어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력 전기차(EV) 모델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해외시장 전기차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다. 17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지난 1~3월 양사 합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3만5499대로 전년 같은 기간(9만5027대)보다 49.7% 늘었다. 내수는 3만982대로 작년 1분기(2만2768대)보다 36.1% 증가한 수준이었으나, 해외 판매량은 10만4517대로 전년 동기(5만4034대) 대비 93.4% 늘어 증가 폭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차종별로는 대표 전기차인 현대차의 아이오닉5(2만3454대)와 기아의 EV6(2만1855대)가 1분기 해외 판매 2만대를 넘어섰다. 아이오닉5는 전년 동기(1만2423대)에 비해 해외 판매량이 배 가까이 늘었고,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한 미국에서도 올 2월과 3월 각각 2000대 이상 팔렸다. 기아 니로 EV(1만9207대)와 현대차 아이오닉6(1만5010대)도 1분기 해외 판매 1만대를 돌파했고,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GV60(2616대), G80 전동화 모델(477대) 등 3000대기량의 해외 판매 실적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한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는 58만8000대로 지난해 판매 대수(약 37만1800대)보다 20만대 이상 많다. 현대차는 지난

1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 33만대를, 기아는 최근 인베스터 데이에서 25만8000대를 각각 제시했다. 통상 국내 자동차업체는 연말 이후인 1분기가 판매량이 적은 비수기에 해당하며, 전기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확정된 2월 이후부터 판매가 살아나므로 1분기 실적은 낮은 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차량(PBV)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51만대로,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364만대로 끌어올려 전기차 판매 글로벌 3위권 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부터는 기아 광명공장 생산라인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순차 전환하는 등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현대차가 울산공장 주행시험장 부지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는 기공식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현대차·기아 의전차량 지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공식 의전차량을 지원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과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차량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 신승규 전무와 문지성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기아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공식 차량으로 ▲아이오닉5 20대 ▲아이오닉6 2대 ▲EV6 32대 등 총 54대를 제공, 성공적인 연차총회 개최를 위해 각국 주요 인사의 의전 및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아태지역 국가들을 비롯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6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한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는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을 주제로 비즈니스 세션, 한국기업 설명회,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금호타이어 ‘슈퍼6000 클래스’ 우승 노린다

일본 슈퍼 GT 우승자 요시다 히로키 영입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레이싱팀이 일본 슈퍼 GT 우승자 요시다 히로키(사진)를 영입하면서 올 시즌 ‘슈퍼6000 클래스’ 우승을 노린다. 요시다 히로키는 지난 2005년 포뮬러 입문 클래스인 FJ1600(포뮬러 주니어, 1600cc급)에 출전해 시리즈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기본기를 닦았다. 이후 GT 레이싱로 방향을 바꿔 현재까지 포르쉐 911 GT3, 페라리 488 GT3, 도요타 GR86, 슈퍼다이아 시리즈, 슈퍼 GT 등 굵직한 해외 정상급 레이스에서 활약해온 베테랑 드라이버로 꼽힌다. 또 2008년 슈퍼 다이아 시리즈 ST-1 클래스 시리즈 챔피언, 2022년 슈퍼 다이아 시리즈 ST-3 클래스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다. 특히 일본 최대 레이싱 대회인 슈퍼 GT 222시리즈에서 한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드라이버로서의 실력과 능력을 증명해 바 있다. 최근 금호타이어는 엑스타 레이싱팀 감독으로 신영학 운영총괄 팀장을 새 감독으로 선임했다. 엑스타 레이싱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본 실력과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찬준, 이창욱과 주니어 드라이버 송영광 선수에 요시다 히로키를 추가 영입함으로써 ‘4인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이찬준, 이창욱 선수는 타고난 재능과 다양한 대회 실전 경험으로 어린 나이에도 안정적



인 실력을 발휘하며 모터스포츠계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금호타이어는 차량 데이터 분석을 위해 윌리엄스 F1팀 엔지니어 출신인 스티븐 비튼을 영입했다. 윌리엄스 F1팀은 통산 9회의 드라이버 챔피언과 7회의 컨스트럭터즈 챔피언 타이틀을 따낸 바 있는 전통의 강호다. 시속 300km를 넘나들며 0.01초의 승부가 펼쳐지는 레이싱 경기에서 서킷에 직접 닿는 타이어는 레이싱 전체 판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은 완주 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요소로 꼽힌다. 요시다 히로키는 ‘국내 최정상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올해 목표는 당연히 팀 우승이다’고 밝혔다. 신영학 엑스타 레이싱 감독은 ‘요시다 히로키는 세계 정상급 레이스에서 실력을 발휘해 온 노련한 선수라는 점에서 팀원들에게 레이싱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고 레이싱 타이어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올해는 4명의 드라이버 라인업을 갖추고 테스트에 공을 들인 만큼 챔피언 타이틀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쉐보레, 볼트 EUV 고객 감사 프로모션

현금+할부 ‘콤보 프로그램’ 최대 100만원 지원 등

쉐보레는 4월 볼트 EUV 고객 감사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쉐보레는 해당 프로모션을 통해 이달 볼트 EUV를 구매하는 고객이 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의 ‘콤보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선착순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이후 구매 고객에게는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5.9% 이율의 36개월 할부 또는 6.5% 이율의 72개월 할부 프로그램을 선수급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볼트 EUV 전시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판매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쉐보레 볼트 EUV는 4000만원 대의 합리적인 가격에도 전기차 전용 설계를 통해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 403km의 성능을 가진 전기차 모델이다. 형제 모델인 볼트 EV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총 20만3600대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 모델이다. 이밖에 쉐보레는 4월 프로모션을 통해 다양한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4월 중 고객이 일시

불로 차량 구매 시 타호와 트레일블레이저는 취득세 50% 지원, 트래버스와 콜로라도는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의 취득세세를 지원한다. 콤보 프로그램을 선택 시 트래버스 400만원, 콜로라도 200만원, 트레일블레이저 20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 ‘Love Once Again’ 프로그램을 통해 쉐보레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재구매 시 스파크 30만원, 트레일블레이저 50만원, 이퀴닉스와 트래버스, 콜로라도, 타호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7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구매 시 20만원, 트레일블레이저, 이퀴닉스, 트래버스, 콜로라도, 타호를 구매 시 30만원의 추가 현금 혜택을 제공한다. 서영득 GM 한국사업장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오랜 기간 출고를 기다린 볼트 EUV 계약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 프로모션을 추가 편성했다”면서 “볼트 EUV의 탁월한 성능을 많은 고객이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